

청양 구기자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¹⁾

이관률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농업중심의 단선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은 낙후지역의 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WTA와 DDA로 인해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마저도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성근외, 2007).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진외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대안모델로서 지역의 농업자원에 초점을 두고 이를 고부가가치화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클러스터, 노르웨이 농식품 클러스터, 일본 야마나시 와인산업 특구 등을 꼽을 수 있다(김정호외, 2004).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6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제33조)을 제정하고 농업자원육성과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농림수산물부의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지

역농업클러스터사업, 지리적표시제, 신활력사업, 행정안전부의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재정경제부의 지역혁신특성화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과 지역향토산업 등을 꼽을 수 있다(이관률, 2008).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중요한 농촌지역발전의 정책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초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에서 농촌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정책은 기초생활권발전정책이다. 기초생활권발전계획에서는 포괄보조사업군을 7대 분야, 24개 사업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농업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있는 것으로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군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농업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농업클러스터로 소개될 수 있는 곳은 순창의 장류클러스터, 성주의 참외클러스터, 영동의 포도클러스터 정도를 꼽을 수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농촌지역 사업이 클러스터로

1) 본 글은 “청양 구기자 산업의 가치사슬과 발전방안(이관률외(2010), 충남발전연구원)”의 일부내용을 발췌 재구성한 것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화된 농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클러스터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선진 외국의 농촌지역은 대부분 농업 및 농촌자원을 지역경제발전의 토대로 활용하고 있다(Clackmas County, 2010). 최근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농업클러스터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영국 요크셔-햄버 클러스터(이병오외, 2009), 스웨덴 외레순 식품클러스터(김태연외, 2009), 네델란드 라흐닝언 식품클러스터(이철우외, 2009), 이탈리아의 와인클러스터(Morrison, A. & R. Rabellotti, 2009), 캐나다 나이아가라 아이스와인클러스터(신동호외, 2008b),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클러스터(신동호, 2008a)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진외국은 농업부와 식품산업의 연계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충남지역의 대표적 농업자원 중의 하나인 청양 구기자를 사례로 하여 가치사슬적 관점에서 구기자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청양 구기자 산업의 문제점

청양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구기자 생산지역이다. 그리고 구기자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청양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 구기자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약하고, 향후 발전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청양은 구

기자 산업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을 모두 양호하게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기자를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지 못함으로써 발전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에서는 청양 구기자 산업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배

첫째, 청양 구기자를 생산하는 절대 다수의 농가는 300평 이하의 소규모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작목반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친환경 구기자 및 지리적 표시제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구기자의 생산성에 치중함으로써 기능성 구기자의 재배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구기자는 대부분 병해충에 강하고 생산량이 많은 품종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반면 구기자 가공상품에 적합한 품종을 재배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구기자 생산비용의 증대로 인해 영세농가에서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성을 갖고 있다. 부부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할 때, 1가구에서 300평 이상의 경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노동집약적 재배구조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구기자의 재배면적을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가공

첫째, 가공업체가 영세할 뿐 아니라 가공산업 규모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구기자 관련 가공업체는 총 1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공업체에서 가공하는 구기자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가공업체는 재배농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통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공업체가 연중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구기자를 재배하고 있고, 전문화된 유통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셋째, 가공업체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가공상품을 생산하고 있고, 가공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공업체는 평균 4개 이상의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개별 가공상품에 대한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넷째, 가공산업과 관련된 후방산업이 지역내에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다. 가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와 포장재료 등의 후방산업이 지역내에서 발전해야 하는데, 현재 이들 후방산업은 주로 수도권과 경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유통·마케팅

첫째, 구기자의 주요 유통경로는 지역외의 한약재시장이 지배적이다. 지역내 수집상을 통해 수매된 구기자는 서울과 경북 등의 한약재시장으로 전량 유통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 결과 지역내에서 구기자를 연중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실

정이다.

둘째, 구기자의 수매과정에서 선별이 되지 않아 친환경 혹은 고급 구기자의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유통단체를 통해 구기자가 수매될 경우 구기자의 선별과정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친환경 및 지리적 표시제 갖춘 구기자를 안정적으로 수매하는 유통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친환경 구기자는 대부분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고 있고, 이를 수매할 수 있는 유통단체가 없는 실정이다.

넷째, 청양 구기자 및 구기자 가공상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상품들은 기존 단골고객을 중심으로 전화주문 판매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4) 지원정책

첫째, 청양 구기자 산업과 관련한 민간자생조직은 불과 4개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자생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도 불과 118명 정도이다. 또한 이들 자생조직간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청양 구기자의 연구개발은 주로 병해충과 생산량을 증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기존의 구기자 관련정책은 생산기반 확충에 주요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실제 청양지역에서 구기자 생산기반은 더 이상 정책지원이 필요없는 분야로 평가된다. 한편 청양구기자시험장을 중심으로 기존

의 가공상품을 개선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발된 가공상품에 대한 시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계성이 지적된다.

셋째, 청양 구기자와 관련하여 축제와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청양 구기자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청양군에서는 고추·구기자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지만, 구기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아울러 구기자의 생산-가공-유통의 전 단계에 걸쳐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청양구기자 관련기관이 집적화되어 청양구기자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적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넷째, 청양 구기자 산업의 핵심주체로 평가받고 있는 청양구기자조합에 대한 정책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지금까지 청양구기자조합에 대한 지원은 주로 가공상품에 대한 정책지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청양구기자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공산업에서 탈피하여 본연의 기능인 수매·유통기능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양구기자 산업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청양 구기자 산업의 발전방안

청양 구기자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양 구기자 산업 자체가 그 규모에 비해서 참여하는 주체가 매우 영세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별 주체가 생산-가공-유통의 모두 책임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이 현재 청양 구기자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공유하고, 이들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수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청양 구기자 산업의 발전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 재배

첫째, 청양 구기자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소득으로 구기자를 재배하는 농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구기자 작목반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구기자 작목반에서는 일반 구기자가 아닌 친환경 구기자를 재배함과 동시에 지리적 표시제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청양 구기자의 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양 구기자 가공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성 품종을 재배하고, 이를 가공업체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수확량을 증대하는 품종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지만, 청양구기자시험장에서 개발하는 기능성 품종을 보급 받아 재배하여 가공산업의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양 구기자 산업의 제약조건 중의 하나가 수확철에 높게 형성되는 인건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기자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동으로 수확할 수 있는 수확기기의 개

발·보급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재배 부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바로 수확장비의 개발·보급이라고 하겠다.

넷째, 청양 구기자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곳을 2-3곳 선정하여 구기자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기자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기자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상징성을 갖춘 대규모 구기자재배단지의 조성이 요구된다.

2) 가공

첫째, 구기가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구기자 가공기술의 보급과 관련분야 창업지원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중심이 되어 구기자 가공기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지역내에서 구기자 가공업체를 창업할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가공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표 및 특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구기자 가공산업에 필요로 하는 1차 가공재료를 공급하는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구기자 가공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유통·판매망을 전문화해야 할 것이다. 자체적인 유통·판매망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청양 구기자 산업의 전체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청양 구기자와 관련 가공산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전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현재 개발·시판되고 있는 구기자 가공산품에 대한 시장성 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가공산품의 개발가능분야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구기자 가공산품은 1-2 종류를 제외하고는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많은 종류의 가공산품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시장성이 있는 1-2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구기자 가공산업의 성장에 따른 지역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기자 가공산업의 후방산업 중 포장재와 제조기기 산업의 육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내외의 관련업체를 전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구기자 가공업체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기자 가공산업 지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유통·마케팅

첫째, 기존 한약재시장의 유통 구조에서 탈피하여 가공산업 및 웰빙식품으로 시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구기자 및 가공산업으로 유통되는 구기자를 별도로 취급하는 유통망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개별 농가에서 직거래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청양 구기자조합을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구기자의 유통·마케팅 단계에서 구기자의 선별과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기자의 색상과 당도 등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선별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대부분의 구기자의 경우 건조 상태로 유통되는 바, 생구기자, 건조구기자 등으로 구분하여 선별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양 구기자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을 지역내에 추가 설립함과 동시에 청양구기자의 통합된 인터넷 쇼핑몰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향토상품전시관과 같은 구기자판매장을 추가 설립·운영함과 동시에 청양구기자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양구기자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청양 구기자 산업의 명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통·마케팅 분야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공동브랜드 지원과 특허청의 단체포장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양 구기자라는 단체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되 개별 가공 및 재배농가가 공동으로 브랜드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지원정책

첫째, 청양 구기자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자생조직이 결성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럼활동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내 혁신주체를 양성하고 이들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청양 구기자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공산업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

서 품종개발이 병해충과 수확량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기 보다는 청양군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가공품을 만들기 적합한 기능성 품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성이 있을 새로운 가공상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양 구기자의 홍보과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양 구기자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민간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구기자 체험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표준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내용적 다양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양 구기자와 관련된 상징로고와 상징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청양구기자조합의 유통기능을 확대하는 전략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청양구기자조합은 유통보다는 가공분야에 초점을 두어 성장해 왔다. 친환경 구기자와 구기자 가공상품의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청양구기자조합이 중심이 되어 구기자를 수매·분류해야 하고 유통망과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글에서는 목적은 충남지역의 대표적 특화자원인 청양 구기자를 사례로 하여 구기자 산업의 가치사슬과 발전방안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청양 구기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양 구기자와 같이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청양 구기자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양 구기자 산업 자체가 그 규모에 비해 참여하는 주체가 매우 영세하다는 것이고, 그 밖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주체가 생산-가공-유통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이 현재 청양 구기자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공유하고, 이들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수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청양 구기자 산업의 발전방안을 간략히 재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양 구기자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배부분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청양 구기자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소득으로 구기자를 재배하는 농가를 육성해야 하고, ② 청양 구기자 가공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성 품종을 재배하고, 이를 가공업체에 제공해야 하며, ③ 구기자의 제품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동으로 수확할 수 있는 수확기기의 개발·보급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④ 청양 구기자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곳을 2-3곳 선정하여 구기자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기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양 구기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공부분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구기자 가공기술의 보급과 관련분야 창업지원시스템의 도입해야 하고, ② 구기자 가공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유통·판매망을 전문화해야 하며, ③ 현재 개발·시

판되고 있는 구기자 가공상품에 대한 시장성 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가공상품의 개발가능분야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④ 구기자 가공산업의 후방산업 중 포장재료와 제조기기 산업의 육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양 구기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유통·마케팅부분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한약재시장의 유통 구조에서 탈피하여 가공산업 및 웰빙식품으로 시장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② 구기자의 유통·마케팅 단계에서 구기자의 선별과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③ 청양 구기자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을 지역내에 추가 설립함과 동시에 청양구기자의 통합된 인터넷 쇼핑몰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④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공동브랜드 지원과 특허청의 단체포장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끝으로 청양 구기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정책 부분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차원의 다양한 자생조직이 결성되고 운영되어야 하고, ② 가공품을 만들기 적합한 기능성 품종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③ 청양 구기자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④ 청양구기자조합의 유통기능을 확대하는 전략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